

전주 '명품 시내버스' 99% 만족

조사 결과... 시민들, 운전자 친절·내부청결·특색 있는 외관·안전운행 등 이유로 꼽아

전주시가 운행 중인 명품 시내버스가 친절한 운행으로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전주만의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관광형 시내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일반 시내버스도 명품버스타입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켜 버스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명품버스를 비롯한 전주 시내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5일 간 명품버스에 탑승해 전주시민 139명과 관광객 84명 등 이용자 223명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명품버스는 동물원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가미한 관광형 시내버스로, 동물원과 전주역, 시외·고속터미널, 중앙시장, 한옥마을, 남부시장, 치명자산 등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총 4대 운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명품버스에 탑승한 이용자들은 '매우 만족' 179명(80%), '만족' 42명(19%), '보통' 2명(1%)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99%가 명품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버스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전주 시민은 운전자 친절(42%), 안전운행(31%), 내부청결 및 특색 있는 외관(20%) 순으로 답했으며, 관광객의 경우 내부청결 및 특색 있는 외관(35%), 운전자 친절(28%), 주요 관광지 경우 및 안내(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운행 중인 명품 시내버스(사진)가 친절한 운행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전주시민의 경우 총 139명 중 132명(95%)이 운전자 친절을 손꼽아 운전자 친절로 인한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명품버스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는 현행 4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긴 배차간격을 꼽았다. 이용만족도 조사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명품버스 운전자의 친절 및 안전 운행으로 어르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으며, 특색 있는 버스 외관과 제복 착용, 주요 관광지 안내방송 등 일반 시내버스와는 차별화된 모습이 명품버

스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명품버스 운행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차량 내, 외부가 청결하고,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도 등을 비롯한 홍보물이 잘 구비돼 있으며, 운전원들이 안전운행을 준수하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이번 명품버스 운행현황 및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명품버스를 비롯한 모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시내버스 친절가사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차량 내부에 공익 안내방송 시행 등을 통해 친절도 향상에 힘 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품버스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민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주 시내버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명품버스를 비롯한 전주 시 모든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버스 타고 싶은 전주'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2018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 31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전주시 소재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운영비의 경우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사업비의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

업으로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한다.

특히, 시는 내년도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주역 앞 차마중길 활성화 연계 사업과 청년 예술인 등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 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군산해경, 무허가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급 어선(이씨, 53살)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집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각각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에 등록된 어선들로 전북도 연안에 멸치 어군(魚群)이 형성되자, 전북

도 해상으로 진입해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같은 날 저녁 8시 군산시 옥도면 황경도 인근해상에서 20t급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특정 어구의 소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 어선은 선명도 관련서류도 없이 미구잡이식 조업을 위해 새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려 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장 형 기자

전처 감금·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처에게 다시 만나지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금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아내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B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내는 불법 현수막 천국... 시는 눈치만

"시민들, 지겹고 피곤" · 수목 생육문제도 발생... 관광객의 전주 이미지에도 영향

불법 현수막들이 전주시내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속해야 할 전주시는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강 건너 불구경인양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마치 성황당에 온 것처럼 걸려 있다.

또한 전주시내 주요 도로에도 빼곡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들이 도배돼 있다. 특히 나무와 나무사이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수목의 생육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수막은 실정법으로 보아 '불법현수막을 제작해 불법구역에 내다 건 것'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이들 행위자들은 최소한 벌금 또는 과태료라도 물어야 할 국면이다. 평소 일선 지자체에는 지정된 현수

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즉시 이들 현수막을 걷어 내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가려야 할 것은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 걸린 현수막을 철거시키고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주위를 오가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은 불만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주시내에서 만난 한 상인은 "전주

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왜 수습방관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불법을 합법인양 가장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만 들지 말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이념성 구호나 소수인들의 이해관계로 마구 내걸린 현수막들이 지겹고도 피곤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옥마을에서 만난 관광객은 "전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걸린 현수막"이라며 "한옥마을에서 느끼는 추억보다는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현수막의 내용들이 더욱 머리에 오래 남아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국서 골프공 훔친 일당 7명

고순대, 견인차 업체 간담회

전국 골프장을 돌며 워터헤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혐의로 A(37,남)씨 등 3명과 B(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골프장에 침입해 필드에 있는 워터헤저드에 빠진 골프공 약 3000여개를 절취했다. B씨 등 2명은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에 있는 13개소의 골프장을 돌며 2,250만원 상당의 골프공 12만 5000개를 훔쳤다.

이들은 야심찬 시간 침입해 잠수복과 뜰채 등을 이용했다. /이상민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공사 당진지사에서 견인차 업체들을 상대로 도로공사와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속도로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견인차 법규위반 사항인 갓길주행, 후진행위, 불법주정차 등 단속법규와 벌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도로공사에서 주요법규위반이 야기시키는 교통사고관련 영상을 제 공해 참석자에게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위험·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견인차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